

# Global Market Daily



리테일파생팀/(1544-8400)

## Market Data

(2024. 05. 16 기준)

## News Brief

### 지수

| 품목         | 종가         | 등락률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
| 종합(KOSPI)  | 2,753.00   | +0.83% |
| 일본니케이225지수 | 38,920.26  | +1.39% |
| 중국상해증합지수   | 3,122.40   | +0.08% |
| 유로스톡스50    | 5,072.45   | -0.56% |
| 독일지수       | 18,738.81  | -0.69% |
| 프랑스지수      | 8,188.49   | -0.63% |
| 다우존스 산업지수  | 39,869.38  | -0.10% |
| S&P500     | 5,297.10   | -0.21% |
| 브라질지수      | 128,027.50 | -0.38% |
| 인도지수       | 73,663.72  | +0.93% |

### ■ 뉴욕증시, 금리 상승 속 하락 마감…다우 장중 4만 선 돌파

- 뉴욕증시는 미 연방준비제도(Fed)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랠리를 펼친 후 피로감이 부각되고 국제 수익률도 오르면서 이날 종시는 하락 전환함
- 전날 공개된 4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가 낙 달 만에 둔화를 재개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강해져 전날 3대 지수는 일제히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함
- 시카고상업거래소(CME) 그룹 페드워치(FedWatch)에 따르면 연방기금(FF) 금리 선물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오는 9월 금리 인하를 개시할 가능성을 약 70%로 반영 중
- 마 비스타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의 실라스 마이어스 최고경영자(CEO)는 "연준이 6번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로 올해를 시작했지만, 치른 1~2년 안하 전망으로 후퇴한 것을 감안하면 현재 여건은 연준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아닌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"고 설명함
- ■ 유럽증시, 실적실망·대형주 악세에 일제 하락...BMW·BP·지멘스↓·로슈↑
- 유럽증시는 기대 이하의 분기 실적을 발표한 일부 기업들과 배당금 지급을 앞둔 대형주가 악세에 유럽 주요국 증시는 전날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서 후퇴함

(출처 : 블룸버그, WSJ)

### 통화

| 품목      | 종가       | 등락률    |
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
| USD/KOR | 1,345.00 | -1.76% |
| EUR/USD | 1.0856   | +0.30% |
| USD/JPY | 155.33   | -0.68% |
| GBP/USD | 1.2646   | +0.45% |
| AUD/USD | 0.6664   | +0.62% |
| USD/CAD | 1.3630   | -0.10% |
| USD/CNY | 7.2235   | -0.13% |
| USD/HKD | 7.8106   | -0.02% |
| USD/CHF | 0.9048   | -0.14% |
| USD/BRL | 5.133    | 0.00%  |

### ■ 달러화, 달러, 4일만에 ↑ …연준 3인자 발언+美 수입물가 급등

- 달러화는 4거래일만에 처음으로 상승 마감
- 연방준비제도(연준·Fed)의 실질적 3인자인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얹누르는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미국의 수입물가가 대폭 뛰었다는 소식이 달러를 밀어 올림
- 돌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미국의 주간 신규실업이 다시 줄어든 것도 달러에 자지력을 제공함
- 유럽 거래에서 전해진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은 매파적 뉴앙스를 전달함
- 윌리엄스 총재는 한 주요 외신과 인터뷰에서 4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가 반값하면서도 조만간 금리를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언급
- 그는 "인플레이션 기조가 완화된 것은 몇 달 동안 실망스러웠던 지표 이후 긍정적인 발전"이라면서도 "지금 통화정책을 바꿀 만한 어떤지표는 보이지 않는다"고 언급

(출처 : 마켓워치)

### 에너지/금속

| 품목             | 종가        | 등락률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WTI, 뉴욕 (선)    | 79.36     | +0.93% |
| Brent, 북해산 (선) | 83.40     | +0.79% |
| Natural Gas(선) | 38,890.00 | +1.33% |
| 금, 뉴욕 (선)      | 2,380.80  | -0.59% |
| 은, 뉴욕 (선)      | 29.81     | +0.27% |
| 구리, LME        | 10,221.00 | +1.43% |
| 아연, LME        | 2,954.00  | +0.63% |
| 니켈, LME        | 19,050.00 | +0.58% |
| 알루미늄, LME      | 1,820.00  | 0.00%  |
| 주석, LME        | 34,100.00 | +2.40% |

### ■ 국제유가, 인플레 우려 완화+감산유지 기대에 일주일 만에 최고

- 뉴욕유가는 시장 참가자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, 원유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에 주목하며 2거래일 연속 상승함
- 미국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가 오는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짐
- 이는 미국 경제 전망은 물론 수요가 악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누그러뜨림
- 아울러 위험선호 심리도 부각되면서 주식은 물론 유가도 견조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됨
- 전일 미국 상업용 원유재고가 2주 연속 감소한 점도 유가 상승세를 더함
- 시장 참가자들은 오는 6월 1일에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(OPEC) 플러스의 감산 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음
- 전반적으로 기존의 감산이 오는 3분기에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
- ■ 금 가격, 수입물가 급등·매파적 연준 인사...-0.5% ↓
- 금 가격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(CPI)에서 둔화 흐름이 확인된 후 기준금리인하 기대감이 강해졌으나 미국 수입 물가가 크게 뛰어 연준 인사들까지 경계감을 드러낸 영향으로 상승마감

(출처 : 블룸버그, WSJ)

## Economic Calendar D

| 시간    | 통화  | 경제지표        | 예상    | 이전    | 중요도 |
|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|
| 18:00 | EUR | 유로존 CPI 상승률 | 0.60% | 0.80% | 3   |
|       |     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|

(출처 : 연합인포)

## Economic Calendar D+1

| 시간 | 통화 | 경제지표 | 예상 | 이전 | 중요도 |
|----|----|------|----|----|-----|
|    |    |      |    |    |     |

(출처 : 연합인포)

## Technical Point

### 해외선물 (대표월물)

(2024. 05. 16 기준)

| 상품  | 종목               | 종가        | 전일대비   | 2차저항      | 1차저항      | 1차지지      | 2차지지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지수  | Mini S&P 500     | 5316.25   | -0.31% | 5383.17   | 5358.08   | 5287.08   | 5241.17   |
|     | FTSE China A50   | 12635.0   | +0.59% | 12713.0   | 12637.0   | 12520.0   | 12479.0   |
|     | NIKKEI225 Dollar | 38540     | -0.46% | 39183     | 38952     | 38387     | 38053     |
| 통화  | Euro FX          | 1.08805   | -0.12% | 1.09475   | 1.09205   | 1.08475   | 1.08015   |
|     | British Pound    | 1.2671    | -0.09% | 1.2756    | 1.2719    | 1.2616    | 1.2550    |
|     | Japanese Yen     | 6464.0    | -0.39% | 6547.0    | 6518.0    | 6440.0    | 6391.0    |
| 금속  | Gold             | 2380.8    | -0.59% | 2421.7    | 2408.3    | 2369.3    | 2343.7    |
|     | Silver           | 29.810    | +0.27% | 30.780    | 30.254    | 28.939    | 28.150    |
|     | Copper           | 4.8810    | -0.88% | 5.2695    | 5.0970    | 4.7830    | 4.6415    |
| 에너지 | Crude Oil        | 79.36     | +0.93% | 80.30     | 79.47     | 77.25     | 75.86     |
|     | Brent Crude Oil  | 83.40     | +0.79% | 84.30     | 83.53     | 81.52     | 80.28     |
|     | Natural Gas      | 38890.000 | +1.33% | 39013.333 | 38696.667 | 38201.667 | 38023.333 |

## FX Market

(2024. 05. 16 기준)

| 구분       | 종가      | 전일대비    | 2차저항   | 1차저항    | 1차지지    | 2차지지    |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Currency | EUR/USD | 1.087   | -0.16% | 1.093   | 1.091   | 1.084   | 1.079   |
|          | USD/JPY | 155.410 | +0.34% | 157.242 | 156.061 | 155.377 | 154.196 |
|          | GBP/USD | 1.26709 | -0.12% | 1.27542 | 1.27199 | 1.26518 | 1.26175 |
|          | USD/CAD | 1.36183 | +0.12% | 1.36880 | 1.36451 | 1.36180 | 1.35751 |
|          | AUD/USD | 0.66775 | -0.25% | 0.67433 | 0.67189 | 0.66703 | 0.66459 |

-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-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돋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입니다. 당사 고객에 한해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될 수 없습니다.

**-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키움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**

**-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**

**-해외파생상품(선물&옵션거래)은 자산가격 변동,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.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**

**-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청산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**

**-FX마진거래는 위탁수수료가 없으나 매매 시 호가 스프레드 등의 거래비용이 발생합니다.**

**-해외선물거래시 수수료(달러상품 계약당 \$7.5, 엔화상품 계약당 ¥600)가 발생할 수 있으며, 기타 수수료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**

**-해외파생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**

**-본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 종목 추천이나 투자 권유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**